

(2026년 10월 23일 금요일 5면)

어르신 위한 '송파 동행버스' 제안



▲박지선 의원
(위례동·장지동)
은 어르신들의
공공·복지시설
접근성을 향상
시키기 위한
'송파 동행버
스' 시범사업
추진을 공식

제안했다.

박 의원은 "장지역 인근 주민들, 특히 어르신들이 장지동주민센터나 문정노인종합복지관까지 이동하는 데 도보 30분 이상이 걸려 큰 불편을 겪고 있다"며 "2026년 9월 기준 장지동의 65세 이상 인구는 6,101명(19.9%)으로 송파구 내 세 번째로 높고 문정노인복지관 이용자의 24%를 차지하는 만큼 이동권 보장이 시급하다"고 강조했다.

이어 "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중 13개 자치구가 공공시설 셔틀버스 조례를 제정했고 성동구, 노원구 서초구 등이 주민센터와 복지·보건 시설을 연결하는 버스를 성황리에 운영 중"이라며 송파구 역시 제도 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.

이에 박 의원은 장지역을 중심으로 장지동주민센터, 문정노인종합복지관, 구립 송파노인요양센터, 송파구치매안심센터 등을 잇는 '송파 동행버스' 시범사업을 제안하며 △어르신 이동 불편 및 공공시설 이용 수요 조사 △기존 노선과 중복되지 않는 시범노선 설계 △타 자치구 우수 사례 검토 및 타 교통취약지역 확대 방안 마련 등을 구청에 요청했다.

박 의원은 "공공시설까지의 마지막 길을 잇는 '송파 동행버스' 도입을 적극 검토해달라"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.